

사순 제1주일

제1독서: 신명 26, 4-10

제2독서: 로마 10, 8-13

복 음: 루가 4, 1-13

숲 정 이

“말씀은 네 바로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로마 10, 8).

강론

“효 자”

김 치 삼 신부 / 효자동 천주교회

사순시기만 돌아오면 내내 건강하시다가도 몸져 누우시던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금년 나이 88세로 사순시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간에 꼭 천국으로 갈 것만 같은 조마조마한 예감을 안으면서 사순시기를 맞이하게 되니 다행함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효자신부라 효자 성당으로 오게 된 것 같다고 말도 합니다만 우리 주님께 효자노릇 잘하라고 안배해주심이라 생각하니 감사함을 느낍니다.

사제생활 35년을 지내오면서 술한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어머니께서는 저를 위해 매일 묵주기도 15단을 바쳐주셨답니다. 기도으로써 말씀으로 품어주시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한창 화려했던 공군대령 군중감 시절 위험한 유혹의 순간도 어머니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저를 굳게 잡아주셨습니다.

어느 날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인생의 황혼길을 향해가는 어머니께서 그 약한 몸으로 온 정성을 다 들여 아들 신부방을 걸레로 닦고 계셨습니다. 너무 안쓰러워 큰소리로 청소하시는 것을 말리니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이 글썽이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후에 생각해보니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유일한 기쁨이셨는데...

오늘 사순 제1주일을 맞이하면서 참회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임할 때 사순시기가 비록 고되고 힘들지라도 노다지 캐는 시기요 천당문도 열린다는 희망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원래 사순은 40이란 뜻을 지니고 있으며 예수께서 구원사업을 위해 그 첫출발로 사십주야 단식의 길 걸으심을 의미합니다.

오늘 루가복음 4장1절에 예수께서는 요르단강가에서 성령을 가득히 받고 악마에게 빵과 영화와 명예로 유혹을 받습니다. 친히 유혹을 받으셨기에 넘어지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즈음은 천당 노래로 소일하시는 어머니를 통해 배운 것이지만 가령 화가 났을 때 밥상을 붙들고 예수·마리아를 묵묵히 외운다든가 미묘한 유혹이 올 때 성서 말씀으로 초전박살낸다고 합니다. 우리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남을 헤아리는 고운 품성을 지니도록 노력하면서 주님의 효성스런 효자가 되십시오. 아멘.

소리

“쓰디쓴 약”

오후1시 전주시 효자동 삼거리 ○○집, 지금 막 14통 반장이 인솔하고 도착한 2단지 아파트 아줌마들 열 세 명이 보신탕을 한 그릇씩 받아 놓고 호탕한 얼굴들이다.

이 일은 지난 87년 대통령 선거 때 있었던 것으로 부정선거 고발센타에 고발했었는데 처리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우리집에도 반장이 와서 한 명만 어서 ○○집으로 가라고, 가보면 좋은 일이 있다고 재촉했지만 그 좋은 일이 보신탕 한사발이래서가 아니라 가면 안된다는 생각 때문에 거절했고, 그때 반장에게 호통을 치지 못하고 만 것이 늘 마음에 걸린다.

끝 또 그런 사태가 닥칠 것이고, 그 ○○집은 신장 확장 일취월장 커가는 음식점으로 되어가고 있고...(음식점은 죄가 없다).

주보 ‘숲정이’의 ‘소리’에 어두운 이야기 꼬집는 말 말고 미담을 아름다운 사건을 실어달라는 요청이 자주 접수된 다지만,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 그 상처가 나올 쓴 약이 제격이어야 하는 아픔은 우리 인생의 긴 여정에서 필연적인 것이다.

그런 ‘소리’의 필자가 부정의 현장에서 고발로 그치고 그보다 더 구체적인 약의 체결을 못하고 두고두고 후회하는 현실이므로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제대로 된 삶의 노릇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복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하느님의 소리가 되어 개선할 것에 칼을 대는 일이 땅에 서서 사는 인간의 일이 어야 한다.

혈연의 유혹을 끊고 순교자가 된 선조의 신앙이 옛이야기로 그쳐야 쓰겠는가? 하느님께는 시간의 흐름이란 없는 것, 늘 오늘날인 것이 신앙인의 존재인 것이다. [국]

숲정이가 산책



사람은 먼지입니다.

성서교실 ①

“성서교실을 시작하면서”

3월 중순이면 금년도('92) 사목교서에서 제시한 “성서를 우리 삶의 중심에”라는 교구장의 지침에 따라 교구 사목국에서는 지역별로 성서교실을 개강하고, 또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통신성서도 시작합니다. 그래도 성서를 공부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홍보국에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주보 ‘숲정’에 ‘성서교실’이라는 난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온 교회가 성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성서를 통해서만이 구체적으로 하느님을 만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교는 근본적으로 계시종교이고, 그중 직접적인 계시가 바로 이 말씀 안에 살아 있고, 이 말씀(성경과 성전)들을 근거하여 가톨릭교회의 모든 가르침이 나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명과 사랑 그리고 구원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성서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면 너나 할것없이 우리 모두 그동안 하느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서를 너무 멀리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각자의 가정을 보더라도 방의 중심이 되는 자리에 십자고상이나 성모상, 기타 성상이나 상본은 있어도 성서는 아예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또 어느 가정은 한 방에 모양만 다르지 같은 십자고상이나 성모상 그리고 성상이나 상본을 2~3개씩 모시고 있으면서 성서는 없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 바쳐진 물건(성별된 물건-모든 성물)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상징적인 것이기에 한 장소에 같은 성상을 모시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천주교는 우상을 숭배하는 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생각케 하고, 천상을 상징하는 성상을 모시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성서를 가까이 모시는 일입니다. 그래야 하느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가족 모두가 성서를 읽고, 묵상한



바를 서로 나누며 살기 위해 가족이 항상 볼 수 있고, 모이는 응접실이나 큰 방에 정성껏 성서를 펼쳐 놓고 하루에 10분, 5분 아니 단 몇 줄이라도(중요한 것은 밀줄도 그어가며) 성서를 읽고, 듣는 습관을 기릅니다.

주교님께서 금년도 사목교서에서 교구민 전체를 위해 “성서를 우리 삶의 중심에”라는 지침에서 제안하신 6가지 말씀(숲정이 1991년 12월 29일자 참조)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적어도 한주일에 한 번은 각자가 느끼고 묵상한 바를 서로 나누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중심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성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가능한 한 교구나 본당에서 실시하는 성서교실, 통신성서, 특별 강좌 등에 적극 참여하고 성서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가톨릭교회에서 편찬한 좋은 책을 참고합시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공의회 문헌 계시헌장 25항).



신부 부케 전문점

진 선 미 꽃 집

이 마리아
범 디도

☎ 84-2628

샤 넬 안경 원

이 순 구(도미니코)
정 병 채(실 비 아)

☎ 54-9525

이리역 인광대 버스
승·하차장 앞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 부 의 집

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 영 자(헬레나)

현대 미용학원

미용·피부,본과,연구과

☎ 86-221, 254-3003

김금순(테레사)

진북동 제일예식장 맞은 편

5분 교리 ㉓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신 하느님”

우리 성당 마당에 웬 낯선 사람이 나타났다. 어디서 온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가 입을 열어 말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영원부터 계신 보이지 않는 하느님, 그분이 먼저 당신 자신에 관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느님이 계신지, 또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신적 진리를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열어 보이신 것을 계시(啓示)라 한다. 하느님의 계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적인 계시를 완성, 마감하셨다. 이것이 하느님 계시 전달의 직접적 본격 채널이라 한다면 간접 채널이 또 있으니 우주만물 곧 자연을 통해서도 드러내신다. 그래서 자연사물의 원리와 원인을 찾는 작업을 계속하노라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던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볼 수 있도록 빛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저절로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가? 그것은 그렇지 않다. 인간 편에서 지불할 신앙이라는 몫이 있다. 신앙의 눈을 통해서만 계시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연극이 무대에 올려지면 사람들은 입장권을 사서 극장에 들어가듯이...

낯선 분, 하느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신 것은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함이다. 우리에게는 초대에 가고 안 가는 자유가 있다. 초대에 기꺼이 응하는 것이 신앙의 행위이다.

* 참고 자료 : 신앙인이라? (카세트 테이프)

교 구 소 식

※ 어머들을 위한 영화 상영 : 3월9일(월) 오전10시 교구청 별관1층 소강당

1. 춘계 사제 총회 및 특별 강연회 : 3월13일(금) - 14일(토) 천호 피정의 집.
2. 성주간 전례 특별 교육 : 3월14일(토) - 15일 천호 피정의 집, 대상 - 각 본당 전례부원.
3. 신태인 성당 · 수녀원 축성식 : 3월9일(월) 오전10시30분.
4. 축! 경진 : 3월15일 오전10시 요촌 성당.
5. 가톨릭 방송인회 모임 : 3월9일(월) 오후7시 교구청 홍보국.
6. 가톨릭 사진동우회 월례모임 : 3월14일(토) 오후2시 가톨릭센터.
7. 전북대병원 병자사목 안내 : 미사 - 매주 토요일 오후2시(지하 세미나실), 고해 · 병자성사 - 미사 후, 봉성체 - 매주 수요일, 문의 250 - 1336.
8. 자연법에 의한 가족계획 교육 : 3월10일(화) 오전10시30분 교구청 별관 4층. 85 - 5098.
9. M.E. 소개모임 : 3월14일(토) 오후3시 교구청 별관 3층 M.E. 사무국.
10. 전화번호 신설 : 창인동 성당 보좌신부 842 - 4424.
11. 원고 모집 : 주제 - ①교회가 어떻게 부활해야 하는가? ②개인적인 삶의 부활 체험, 원고지 5매 이내, 마감 - 3월31일까지, 문의 - 홍보국(85 - 0041).
12. 가르멜산 성체회 미사 · 교육 : 3월13일(금) 10시30분 - 13시 중앙 성당, 강사 - 박시문 회장.

- 성소모임 전교가르멜수녀회 : 3월15일 오후2시 서신동 성당 수녀원 (0652)74 - 9262.
천주의 성요한수도회 : 수시로 연락 방문, 광주 수도원 (062)529 - 0041.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농촌 공동체 문화 되살리기

일부 도시 사람들의 퇴폐적이고 낭비적인 생활을 비판하고 마을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놀이와 행사들을 살려봅시다.

요십이 (970) 김병오



직원모집

- 자격 : 고졸 이상 23세 미만의 미혼 여성
- 제출서류 : 영세증명서, 이력서,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자격증 사본 각1매
- 제출기간 : 3.13. (금) 오후6시
- 제출처 : 평협 ☎ 85 - 2935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모임

- 일시 : 3.15. (일) 오후2시 - 5시
- 장소 : 부산시 금정구 부곡3동 산13-24 수녀원
- 문의 : (051)514 - 1773

새 싹 화원

동 양 란 전문
유 제 형(바오로)
김 영 근(크리스티나)
☎ 72 - 9044
(호) 012 - 684 - 4876

양재 · 한복 · 홈패션
노라노학원
수시모집, 원장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형문(대건안드레아)
동부시장앞 · 민정당시영
☎ 86-2715
* 냉난방 완비

주간종합생활정보신문

호남매매정보

광고, 상품 안내, 구인, 구직,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중고 생활용품 매매, 자동차 매매 등.
대표 김 영 주(루보) 발행인 겸 편집인 박 선 화(세실리아)
☎ 87 - 6011 ~ 2 FAX 85 - 1029
(0654)43 - 2023 ~ 4 FAX 43 - 2025

대장 · 향문병(치질) 전문치료
서울의원
-레이저에 의한 무통 수술로써
수술 후 평상 활동 가능 -
원장 이 상 재(베네딕도)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상담전화 75 - 0550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노 송 남

1. 오늘은 사순 제1주일입니다. 사순절을 거룩히 보냅니다.
2. 사순절 특별강론: 시간-매주 금요일 저녁미사 후 강사-임제빈 (라파엘) 교수 3. 잠무회: 오늘 공식미사 후 4. 12월영세자 첫 고백: 후1시부터 6시까지 5. 부녀회: 10일 어머니미사 후 6. 십자가의 길 안내: 평일미사 30분전(개별적으로), 금요일미사-사목회 각 분과별로 인도.
7. 중·고등부 교사명단: 조세래, 전백근, 현우진, 이현경, 이육희, 현천미, 박종주, 장신자, 박혜정, 이민수
8. 금주청소: 남노3, 4만 차주청소: 남노5, 6만
□ 지난주 봉헌금: 739,415원 □ 교무금: 1,450,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이 상 인

1. 십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미사 후 (사순시기동안 금요일 낮미사 없음)
2. 구역모임: 10일-오후3시 고사동2반, 오후8시 다가동 1반
11일-오후3시 다가동3반, 오후8시 다가동2반
12일-오후3시 다가동5반, 오후8시 다가동4반
13일-오전11시 환산동
3. 회합: ①요셉회(공식미사 후) ②꾸리아(오후2시) ③청년회(저녁미사 후) ④안나회(12일오전10시) ⑤성시간(12일밤11시) ⑥여성분과회(14일오전10시) ⑦성우회(15일공식미사 후)
4. "축"결혼: 15일12시. 신랑-이정관(분도)군 신부-조현영양.
5. 금주전례: 조옥례 독서-신태섭씨 부부 봉헌-윤재원씨 가족
차주전례: 정승훈 독서-강익구씨 부부 봉헌-황유현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583,430원 □ 교무금: 1,175,5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한 동 육

1. 오늘은 사순제1주일입니다.
2. 성가정, 청년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성서읽기: 창세12장~25장 4. 청소봉사: 모든성인의모후Pr
5. 가정방문: 10일(화)-서당, 공기 11일(수)-신홍, 셋터 12일(목)-백암, 내정
6. 춘계 사제 총회: 13일(금)-새벽미사
7. 미사시간 변경: 평일 화~토 저녁7:30
8. 전례교육: 14일~15일까지 천호
9. 금주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김봉길 ②김기남
차주전례: 해설-박영미 독서①유순철 ②김순이
봉헌-양주태, 유춘근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77,900원 □ 교무금: 406,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 오늘은 사순제1주일! (3월은성요셉의달)
1. 회의: ①제축프란치스코3회-오늘오후2시 ②성심회-3월13일(금)오후2시 ③성모회-다음주일(3월15일)공식미사 후.
 2. 모임: ①전례부-다음주목요일(3월19일)오후8시
 3. 알릴: ①봉성체-다음주수요일(3월18일) ②매주금요일은금요일입니다(검소한생활로사순절을뜻있게지냅니다) ③매주금요일 저녁미사에십자가의길기도에신자들의많은참여바랍니다. ④사순절동안이라도불우이웃을위하여서로의사랑을나누는자세를가집니다.
□ 지난주 봉헌금: 679,300원 □ 교무금: 559,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1. 사순절입니다. 희생과헌신의식으로매일매일새롭게나아가십시오.
2. 교리실비품봉헌에 적극참여합니다.
3. 꾸리아: 오늘 공식미사 후
4. 성주간특별전례교육: 3월14일~15일-천호성지
5. 예비자 인도에 적극 참여바랍니다.
6. 가정방문시작: 3월11일-1구역1반 12일-1구역2반
7. 십자가의 길: 매일 미사, 30분전
8. 주일학교개학: 유치부~6학년-많은협조바랍니다.
9. 다음주일은 신부님 영명 축하식과 교리실 축성이있습니다.
10. 청소봉사: 2구역.
□ 지난주 봉헌금: 676,700원 □ 교무금: 782,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삼 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이 영 태

- ※ 사순제1주일-사랑과 생명의 사순시기!
1. 금주모임: ①자모회(오전10시) ②사목회(공식미사 후) ③일치의모후Cu(후2시) ④구역봉사자모임(후7시)
 2. 든·보스코회: 11일(수)저녁7시 3. 구역반장모임: 12일(목)오전11시
 4. 레지오단원교육: 3월14일(토)후1시30분 전단원 참석바람.
 5. 유아세례: 14일(토)후3시
 6. 사순절 신학생우원 돼지저금통분배: 구역반장님이 전달. 기타 동은 사무실.
 7. 혼배성사면담은 반드시 혼인강좌 수료 후 예약한달 전에.
 8. 차주모임: 바나의 성모Cu(후2시) □ 지난주 봉헌금: 1,855,42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이 완 규

- ※ 십자가의 길: 매일 저녁7시(금요일은 수난묵상) 모두함께.
1. 사순절 특강미사: 매주 월요일 후7:30분, 새벽미사 없음.
 2. 마치에스 행사: 15일 후2시30분, 활동, 협조단원은 의무참석.
 3. 성전건축 추진위원회: 12일 후8시, 매주 목요일마다 회의.
 4. 주공APT 구역미사: 15일 후7시30분, 복지회관으로 오십시오.
 5. 전일신자및 쉬는교우 방문: 10일-14구역, 12일-마음리 공소
 6. 중·고생 교리 개학식: 15일 전9시, 부모님들의 협조바람.
 7. 제대회 월례회: 13일 후3시, 사제총회 관계로 말씀의전례.
 8. 전례부원 교육: 14일~15일 천호-심상자, 최병남
 9. 성미주머니, 돼지저금통을 받지못한 가정은 사무실에 문의.
 10. 회의: 자모회-11일 어머니미사 후, 청년회-15일 후8시.
□ 지난주 봉헌금: 865,150원 □ 교무금: 1,018,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갑

1. 성모회: 오늘 미사 후. 2. 사목회: 오후8시.
3. 반모임: 10일(화)오전-화산2(B) 오후-평화, 성원 저녁-삼정2. 11일(수)오전-금하 오후-화산2(B)
4. 자모회: 다음 주일미사 후.
5. 본당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교무금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6. 금주전례: 한병갑 독서·봉헌: 김기탁, 이충식
차주전례: 최정순 독서·봉헌: 정현장, 김의식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서 석 회

- ※ 오늘은 사순 제1주일입니다. 사목회장이 동석
- ※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단식과 금육을 지키고 그 뜻은 가난한 이웃사람을 실천하는데 써야 합니다.
- ※ 단식-제의 수요일과 예수 수난금요일(21세-60세)
금육-제의 수요일과 사순절 모든 금요일(14세-모든신자)
- ※ 십자가의길-매주 금요일 09:30(성당에서 있습니다)
- ※ 모임: 울뜨레아-오늘12시, 성모회-수(11시), 테레사회-다음주일10:30
※ 레지오교육: 3월9일(월)오후6:30(레지아주회)
- ※ 가정방문: 효동마을, 삼천리공3단지부근(수, 목, 금)구 반장 사무실 연락
- ※ 예비자모집: 사무실에 접수하세요(예비자들을 많이 인도합니다)
- ※ 구역, 반장님들 사순절 저금통을 사무실에서 가져가세요.
□ 지난주 봉헌금: 1,278,370원 □ 교무금: 1,231,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임 의 도

1. 회의: 울뜨레아: 공식미사 후, 빈센시오회: 9(월)9시미사 후, 성모, 성심자모회: 13(금)10시미사 후.
2. 판공성사: 10(화)남양효자, 저녁 현대5 11(수)오후신주1,2, 저녁: 현대6 12(목)송정 저녁: 제일 13(금)남양, 한성, 태하 저녁: 안심리 오후2시, 저녁8시 시간은 동일.
차주모임: 새벽회
금주전례: 해설-조세열 독서①오우진 ②최규자
기도①안문수 ②김미숙
차주전례: 해설-강진상 독서①엄정준 ②임정경
기도①이필진 ②손애현
□ 지난주 봉헌금: 1,207,780원 □ 교무금: 2,486,000원